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 소 화*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development trajectory)을 규명하고,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개인·가족·친구·학교요인이 발달궤적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3년부터 5년 동안 수집한 중2패널 5개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대상은 총 3,449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을 사용하였고 AMOS 5.0 버전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비행은 5년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형의 2차 곡선 형태로 나타나 비행수준이 청소년 중기에 가장 높다가 성인기에 가까워지는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수록 감소한다는 서양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행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요인 중에는 자기존중감과 자아통제력이, 가족요인으로는 부(모)학력, 부자가정, 부부갈등, 자녀학대가, 친구요인으로는 비행친구 수, 학교요인으로는 학교유대와 학업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변화양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청소년비행, 비행 발달궤적, 잠재성장모형, 생태체계적 요인

*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I . 문제제기

청소년비행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데 서양의 연구결과(Hoeve 외, 2008; Landsheer & Dijkum, 2005; Shavit & Rattner, 1988; Steffensmeier 외, 1989; Steffensmeier · Streifel, 1991)에 따르면 청소년 중기(middle adolescence)¹⁾인 15~16세에 가장 정점에 이르다가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등을 더 많이 저지르며(장수한, 이성기, 2008), 가출의 경우도 15~16세에 정점에 이르며 17세 이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006).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상이한 연령집단을 이용한 즉, 횡단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로서 연령별 비행의 대체적 양상을 보여주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비행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종단데이터를 이용한 청소년비행의 변화양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종단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이 연령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는지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의 변화가 서양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낼지, 아니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만의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비행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비행이 청소년의 연령의 변화에 따라 상승하고 하강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인다 하더라도 비행의 시작 연령, 지속기간, 심각성 등에 있어서 많은 개인차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Chung 외, 2002; Moffitt, 1993; Laub 외, 1998; Hoeve 외, 2008; Wiesner & Windle, 2004). 다시 말해 모든 청소년들이 동일한 발달궤적을 경

1) Thornberry(1987)는 청소년시기를 초기(11-13세), 중기(15-16세), 후기(18-20세)로 구분하였고, 각 발달단계에 따라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초기에는 부모와의 유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부모의 영향력은 작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힘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경로에 있어 다양한 개인차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청소년비행의 일반적인 발달경로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비행 발달궤적에 있어 개인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강조되는 바가 다르지만, 이를 정리해보면 대개 성별, 나이,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등과 같은 개인요인, 가족 구조, 빈곤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등과 같은 가족요인, 비행 친구와 같은 친구요인, 학교부적응 등과 같은 학교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비행은 어느 한 가지 요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등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도 하고, 이들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요인과 비행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이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비행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패턴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 둘째, 이러한 비행의 발달궤적(developmental trajectory)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5개년도의 중학교 2학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을 통해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을 모델링한 다음,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특정시점에서 비행과 비행원인과의 상관적 관계를 분석하는 횡단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비행의 발달궤적을 예측하고, 이런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발달적 관점에서 비행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행의 시작 및 지속에 있어 개인, 가족, 친구, 학교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게 한다. 또한 발달단계별로 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대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미국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국(OJJDP)은 아동기에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아동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개인, 가족, 친구, 학교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다(Wasserman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4가지 영역에서 사회통제이론, 자아통제이론, 자아훼손이론(Self-Derogation theory), 차별접촉이론 등에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경험연구를 통해 비행과의 영향력이 입증된 변수를 중심으로 비행과의 관련을 살펴보았다.

1. 개인요인

1) 성별

청소년비행은 성별에 따라 종류나 발생율, 심각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이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며(장수환, 이성기, 2008), 2003년 현재 전체 소년범 중 남자소년범이 83%를, 여자청소년이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관광부, 2004). 비행의 빈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비행의 발달경로에 있어서도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Rutter(1995)에 의하면 비행을 시작하는 연령은 남녀 간에 유사하나 여자 청소년들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더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하지 않고 그만 두지만, 남자청소년들의 경우는 한번 시작한 비행이 점점 심각하고 폭력적인 비행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 200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비행이 성별에 따라 다른 패턴과 발달경로를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청소년비행의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성별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자아존중감

Kaplan(1975)의 자기훼손이론(self-derogation theory)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기피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동기는 청소년기에 강해지게 되는데 만약 가족이나 친구 같은 청소년의 준거집단 내에서 이런 동기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게 되고,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행또래집단에 가담하거나 비행행위를 하게 되며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향상된다는 것이다(Mason, 2001). 이런 맥락에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많은 경험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Donnellan 외, 2005; Mason, 2001; Rosenberg 외, 1989; 김희화·김경연 2000; 심희옥, 1998; 김은경, 유가호, 2002).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는 달리 자아존중감이 비행과 관련이 없거나(Jang & Thornberry, 1998; Ziemann & Benson, 1983; Wells & Rankin, 1983; 윤혜미, 박병금, 2005; 정익중, 2006), 간접적 영향만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이경남, 2002)도 있고, 인과관계의 방향에 있어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aCarthy 외, 1984; Jang & Thornberry, 1998; 정익중, 2006)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비행과의 관계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유발한다는 뒤떨어진 관점은 폐기되어야 한다(Baumeister 외, 2000)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종단연구를 통해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과 관련있음을 입증하는 연구결과(Mason, 2001)도 여전히 제시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예측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3) 자아통제력

갓프레드과 허쉬(1990)의 자아통제이론에 따르면 자아통제력은 비행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다. 자아존중감과 비행과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자아통제력과 비행과 관계는 상당히 일관적인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Hay, 2001; Higgins & Ricketts, 2005; Meldrum, 2008; Nichols, Graber, Brooks-Gunn, & Botvin, 2006; Pratt & Cullen, 2000; 고정자, 2005; 김두섭, 민수홍, 1996; 민수홍, 2004, 1998; 정소희, 2007; 하영희, 2003). 즉,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된

다는 것이다. 자아통제력은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성식, 2007; 정소희, 2007), 비행친구 접촉이나 학교부적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Gottfredson and Hirsch, 1990; 민수홍, 2005; 이성식, 2007)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내적 기제라고 볼 수 있다.

2. 가족요인

1) 가족유형

한부모가정은 양부모가정에 비해 한 사람의 부모가 생계 및 자녀 돌봄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하므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자녀의 생활에 대해 감독이 부족하기 쉽고 이로 인해 청소년비행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가족유형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는데 서양의 경우 대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이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muth · Brown, 2004; Salem 외, 1998; Vandewater & Lansford, 1998; Hoffmann · Johnson, 1998; Thomson, 외, 1994).

한부모가정내에서도 모자가정인지 부자가정인지에 따라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가족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자녀학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가족유형이 부자가정이며(한겨레신문 2005. 5. 11) 부자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 부모감독수준은 두부모가정보다 유의하게 낮다(정소희, 2006)는 연구결과를 볼 때 모자가정에 비해 부자가정 아동이 더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승환(2001), 서지영(2002) 등의 연구에서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간에 비행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소희(2006)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황과 가족과정을 통제한 이후에도 부자가정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방식(Heimer, 1997; Sampson & Laub, 1994; Wiatrowsi 외, 1981; 기광도, 2001; 이경남, 2001; 정소희, 2007)과 학교애착, 친구애착 등의 요인(Wiatrowsi 외, 1981)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자녀에 대한 감독이 부재하기 쉽고, 자녀와의 애착정도가 낮으며, 강압적이거나 가혹한 훈육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 집단과의 접촉이 더 많으며 이것이 심각한 비행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행의 직접적 촉발요인은 아니지만 비행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과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모양육행동

부모자녀애착, 자녀의 행동에 대한 관심과 감독, 자녀에 대한 훈육방식 등의 부모 양육행동은 아동기에 비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청소년 자녀의 비행행동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자녀애착이 높고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적절히 관여하고 감독하며, 온정적이고 민주적으로 훈육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비행을 적게 하는 반면 부모자녀애착이 낮고,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적절한 감독이나 관여를 하지 않으며, 언어적·신체적 체벌 사용 등 가혹한 훈육을 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비행을 더 많이 하게 된다(Demuth & Brown, 2004; McLeod 외, 1994; Smith & Stern, 1997; 기광도, 이희길, 2002; 김두섭, 민수홍, 1996; 김정옥, 박경규, 2002; 민수홍, 2004; 정소희, 2006 하영희, 2003).

3. 친구요인 : 비행친구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하여 부모의 영향이 줄어들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비행에 있어서도 친구집단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인

해 Gottfredson과 Hirsch(1990)는 비행을 집단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행에 있어 친구의 영향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차별접촉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비행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규범이나 법을 준수하는 친구들 보다 그렇지 않은 비행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그만큼 친비행가치를 학습할 기회가 많게 되고, 비행을 해도 괜찮다는 비행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주장처럼 비행친구접촉(혹은 교류)은 비행의 직접적 요인 중 가장 강력한 선행요인으로 예측되고 있으며(Simons 외, 1998), 많은 연구(Jang & Thornberry, 1998; 이성식, 2007; 정익중, 2006; 김희화, 2001; 노성호, 2005; 유순화, 2003)에서 비행의 주요요인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비행친구는 비행의 시작뿐만 아니라 지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희화, 2001) 이와 같은 결과는 비행친구들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이 비행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4. 학교요인

1) 학교유대(school bonding)

Hirsch(1969)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학교는 중요한 사회화기관으로서 학교와의 유대가 잘 형성되면 개인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비행이 줄어든다고 보았으며, 실제로 그는 성적이나 학교에 대한 애착, 선생님과 관계, 학교와 관련된 정서적 긴장감 등이 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유대와 비행과의 부적인 관계는 이외에도 많은 경험연구에서 검증되고 있다(Lee · Smith-Adcock, 2005; Catalano 외, 2004; Cernkovich 외, 1992; Shears 외, 2006; Bryant 외, 2003). 종단연구에서도 학교유대와 비행과의 관계가 검증되었는데 SSDP(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와 RHC(Raising Health Children)는 실험연구방법과 종단연구를 결합하여 학교와의 유대가 청소년의 행동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SSDP의 연구결과 초·중학교 때의 학교와의 유대가 알콜남용, 비행, 폭력, 성행위의 시작 등과 유의미하게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RHC project의 경우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 측정된 학교애착이 5학년, 6학년 때 측정된 공격성, 학교에

서의 부적응행동, 약물사용 및 비행과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나타냈다(Catalano 외, 2004).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교 유대가 문제행동 및 비행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학업성적

낮은 학업성적은 학교적응과 관련이 높으며 학교중퇴의 주요 원인이다. 100여개 이상의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낮은 학업성적은 비행의 시작, 지속, 빈도, 심각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Maguin & Loeber, 1996) 지능과 주의집중문제를 통제한 다음에도 학업성적은 비행의 주요 예측요인임이 확인되었다(Loeber 외, 1996).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은 학교와의 유대를 발전시키기 어렵고 성공에 대한 기대도 낮게 된다. 이처럼 학업성적과 학교유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Wasserman 외, 2003).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청소년패널 데이터 중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조사된 중학교 2학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조사시작 시점에서는 응답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5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1차년도 총 조사대상자는 3,499명이었으나 해가 거듭할수록 강력거절, 연락두절등의 이유로 패널 탈락자가 발생하여 5차년까지 패널로 유지된 청소년은 2,721명으로 전체의 78.9%에 해당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2009. 2. 7.).

2. 주요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 비행

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14가지 종류의 청소년 비행을 비행경험유무와 비행빈도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4가지 종류의 비행 경험유무를 합산하여 등간변수로 사용하였다. 14가지 비행 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청소년들은 0점이고 14가지를 모두 다 경험해 본 청소년은 14점을 얻게 되어 0점에서 14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이게 된다.

2) 독립변수

(1) 개인요인

① 성별

원자료에는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어 있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여자는 0, 남자는 1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② 자아통제력

자아통제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크게 행동척도와 태도척도로 나눌 수 있는데 행동척도의 경우 비행 행동과의 유사성이 너무 높아 동어반복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Pratt 외, 2004). 청소년패널에서는 태도척도에 해당하는 6가지 문항으로 자아통제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6가지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자아통제력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등이며 모두 5점짜리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것이다. 자아통제력의 문항간 신뢰도는 .685로 나타났다.

③ 자아존중감

청소년패널에서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중 6가지 문항을 추출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있다. 사용된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등이며 앞의 세 문항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 뒤의 두 문항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것이므로 뒤의 3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고 문항 간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다.

(2) 가족요인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은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가족유형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부모자녀애착, 부모감독, 자녀학대 등과 같은 가족과정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부(혹은 모)의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부나 모 동일하게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전문대(5), 대학교(6), 대학원 석사(7), 대학원 박사(8) 순으로 서열변수식으로 코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부모가정과 같이 부나 모 한쪽 데이터만 제공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나 모의 교육수준 중 높은 쪽을 택하여 측정하였다.

② 빈곤유무

빈곤은 조사시작년도인 2003년도 가구빈곤유무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2003년도 월평균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그 값이 1이하이면 빈곤가구로, 1을 초과하면 비빈곤가구로 조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빈곤 개념은 절대빈곤 유무로 볼 수 있다.

③ 가족유형

가족유형은 두부모가정을 기준변수로 하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패널데이터에는 계부모가정에 대한 사례수가 매우 작아 이를 독자적인 범주로 분류하기가 어려우므로 계부모가정(친부양모와 양부친모가정)의 경우에도 양쪽 부모가 다 존재하면 두부모가정에 포함하였다.

④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의 6가지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항 간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⑤ 부모감독

부모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4가지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측정하였고 문항 간 신뢰도는 .86로 나타났다.

⑥ 자녀학대

자녀학대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는 두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측정하였고 자녀학대의 신뢰도는 .76이었다.

(3) 친구요인 : 비행친구 수

비행친구는 조사대상인 청소년이 친하다고 느끼는 친구 중에서 지난 1년간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무단결석, 폭행, 뺑뺑기, 훔치기 등의 6가지 비행경험을 한 친구들의

수로 조작하였다. 비행친구 수도 심하게 편포되어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므로 1차년도 비행친구수를 0명은 1, 1~2명은 2, 3~4명은 3, 5~6명은 4, 7명이상은 5로 리코드하여 사용하였다.

(4) 학교요인 : 학교유대

학교유대는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렵다’,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학교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학교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등의 4가지 질문을 역코딩한 다음 총점을 내어 측정하였다. 모두 5점짜리 리커드 척도로 측정된 것이며 문항 간 신뢰도는 .69이었다.

3) 통제변수 : 결측유무와 고교유형

결측치 분석결과 결측치 발생이 독립변수와 체계적인 관련을 보임에 따라 이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결측유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5차년도까지 한 번이라도 결측이 있으면 1로 코딩하였다. 중2 청소년패널조사가 5년 동안 진행됨에 따라 조사시작 당시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등학생으로 성장하였고, 고교진학 유형에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인문고와 실업고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학업성적, 가족환경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실업고 = 1). 인문고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종합고 일반계, 과학고, 외고, 자립형 사립고, 예체능고를 포함시켰으며, 실업고에는 실업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종합고 실업계를 포함하였다. 기타 대안학교 등은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1) 결측치 분석

5차년도 패널데이터 중 적어도 1개년도 이상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는 총 3,449명 중 738명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하였다. 결측치들이 종속변수인 비행과 본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들과 체계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결측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를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성별, 가구소득, 부부갈등, 자녀학대 등은 결측유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측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 독립변수들과 체계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측유무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청소년비행의 변화궤적과 변화궤적의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이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와 개인 간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방법이다(Duncan, Duncan, Strycker, Li, & Alpert, 1999).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의 비행은 다음과 같은 함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Llabre 외, 2004).

$$Y_{ij} = \pi_{0j} + \pi_{1j} t_{ij} + \pi_{2j} t_{ij}^2 + r_{ij} \quad (1)$$

식 (1)에서 π_{0j} 는 청소년 j의 비행의 초기치를, π_{1j} 는 청소년 j의 비행의 선형계수(linear coefficient), π_{2j} 는 변화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차항의 계수를 나타낸다. t_{ij} 는 청소년 j의 I번째 시간을 말하며 r_{ij} 는 무작위 측정 오차를 말한다. 만약 분석기간 동안 비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식(1)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비행의 변화를 의미하는 1차항($\pi_{1j}t_{ij}$)과 2차항($\pi_{2j}t_{ij}^2$)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분석기간 동안 비행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일어났다면 곡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2차항($\pi_{2j}t_{ij}^2$)은 모형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처럼 초기치만 있는 모형과 직선형 모형은 식(1)에 내포된(nested) 모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1)과 같이 2차항 성장 곡선모형(quadratic growth curve model)으로 기본모형을 설정한 뒤 모형비교를 통해 비행의 변화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변화모형이 설정되면 비행궤적의 초기치(π_{1j})와 변화율(π_{2j}),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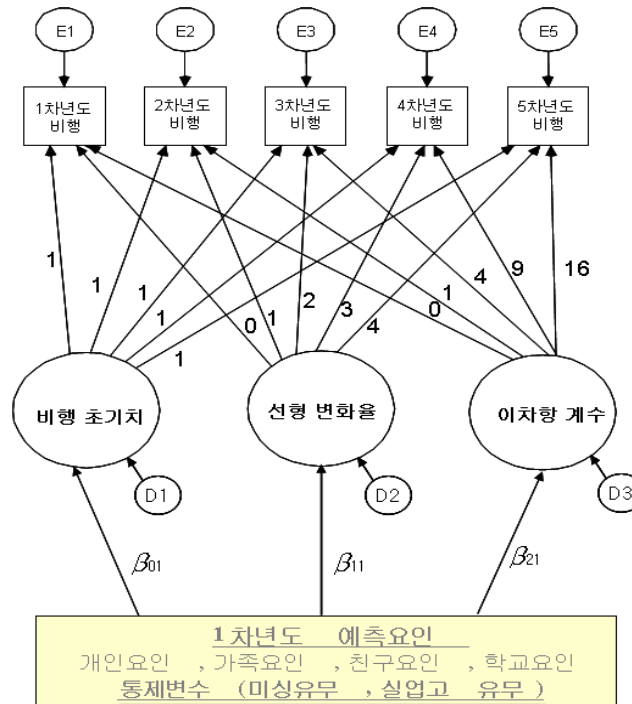
율의 변화(π_{2j} , 이차항 계수)를 설명하는 2수준모형을 분석하게 되는데 2수준모형은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begin{aligned}\pi_{0j} &= \beta_0 + u_{0j} \\ \pi_{1j} &= \beta_1 + u_{1j} \\ \pi_{2j} &= \beta_2 + u_{2j}\end{aligned}\tag{2}$$

식(2)에서 세 가지 잠재변수 π_{0j} , π_{1j} , π_{2j} 는 고정된 부분 즉,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집단 평균치(β_0 , β_1 , β_2)와 평균치에서 각 개인이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잔차(u_{0j} , u_{1j} , u_{2j})의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잔차의 평균은 0이고 정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외생변수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프로그램 개입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2)의 2수준 모형에 외생변수가 투입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π_{0j} , π_{1j} , π_{2j} 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begin{aligned}\pi_{0j} &= \beta_{00} + \beta_{01} \times X_j + u_{0j}, & \pi_{1j} &= \beta_{10} + \beta_{11} \times X_j + u_{1j} \\ \pi_{2j} &= \beta_{20} + \beta_{21} \times X_j + u_{2j}\end{aligned}\tag{3}$$

위의 식에서 초기치와 변화율, 이차항의 계수는 고정된(fixed) 집단 초기치(β_{00} 와 β_{10} , β_{20})와 관찰변수가 초기치와 변화율, 이차항의 계수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계수(β_{01} 와 β_{11} , β_{21})를 갖게 된다.



[그림 1] 2수준 분석모형

연구문제 2)는 연구문제 1에서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이 규명이 되면, 이런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행의 초기치와 변화율, 2차항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개인적 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등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2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2수준 분석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χ^2 통계량,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NFI, CFI 등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NFI나 CFI는 .90이상이면 수용할 만하고(Kline, 1998; 배병렬, 2005) RMSEA는 0.10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05이하이면 자료를 매우 잘 적합시킨다고 볼 수 있다(Steiger, 1990; 배병렬, 2005에서 재인용).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에는 Amos(Version 7)를 이용하였고 자료의 기술통계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SPSS(Version 12)가 이용되었다.

IV. 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1>은 본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연속변수는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표시하였으며, 명목변수는 사례수(N)와 비율(%)로 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비행은 3차년도까지는 감소하다가 4차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비행의 변화가 비선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학생의 21%정도가 실업고에 진학하였으며 약9%의 청소년들이 조사 시작년도인 중2학년 때 빈곤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의 비행친구 수는 약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M	SD	M	SD	M	SD	M	SD	M	SD
	N	%								
종속변수										
비행	1,15	1.68	.76	1.40	.72	1.22	.80	1.18	.91	1.15
시불변변수(time invariant variable)										
결측유무(결측있음=1)	736	21.3								
고교유형(실업고=1)	716	20.8								
성별(남=1)	1,725	50								
자이존중감	18.97	3.74								
자이통제력	19.95	4.04								
부(모)학력	4.80	1.27								
빈곤(빈곤=1)	275	9.1								
모자가정	110	3.2								
부자가정	64	1.9								
부모애착	20.04	4.67								
부모감독	12.89	3.47								
자녀학대	3.46	1.78								
비행친구수	2.98	8.11								
학업성적	24.98	5.15								
학교유대	16.67	2.68								

분석의 전제가 되는 연속변수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비행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왜도 3이하, 첨도 10이하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비행의 경우 왜도는²⁾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나 첨도의 경우 2차년도, 3차년도 데이터가 일반적인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정규성 초과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Kline, 1998) 종단연구에서 주요변수의 변량의 증감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므로 종속변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원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비행의 발달궤적 설정(1수준 분석)

자료가 수집된 5개년동안 청소년비행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 <표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5년 동안 비행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무변화모형은 다른 두 모형에 비해 χ^2 값(767.876)이 매우 크고, 적합도가 매우 낮아 적절한 모형으로 보기 어렵다. 비행의 변화가 선형적이라고 가정한 모형2의 분석결과를 보면 무변화모형에 비해 χ^2 값(446.945)이 많이 줄어들었고, 적합도도 많이 향상되었으나 RMSEA의 값이 0.1을 초과하므로 이 모형 또한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데이터에서 나타난 대로 비행의 변화를 곡선적으로 가정한 모형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2에 비해 χ^2 값(91.975)이 많이 줄어들었고, 적합도도 향상되었으며 RMSEA의 값이 0.1보다 작아져서 모형 3이 모형 2보다 적합도가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모형 2는 모형 3에 내재된(nested) 모형이라 볼 수 있으므로 모형 2와 모형 3을 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Delta\chi^2=354.97^{**}$, $\Delta df=4$), χ^2 값의

2) 비행의 정규성 검토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왜도(S.E.)	첨도(S.E.)
1차년도 총비행	3449	0	12	2.21(.04)	6.17(.08)
2차년도 총비행	3188	0	12	3.01(.04)	12.00(.09)
3차년도 총비행	3114	0	13	3.10(.04)	14.99(.09)
4차년도 총비행	3121	0	11	2.58(.04)	10.46(.09)
5차년도 총비행	2958	0	10	2.28(.04)	8.61(.09)

유의미한 감소가 발견되었으므로 모형 3이 더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차함수모형인 모형 3을 최종적인 분석모형으로 설정한 후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 이차항 계수를 추정하였다.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치의 평균은 1.107, 변량은 1.854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비행의 초기값이 청소년들 간에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행변화율의 평균은 -.333으로 나타나 중학교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년 동안 청소년비행은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율의 변량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비행 변화율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율의 변화를 의미하는 2차항의 계수는 .073으로 나타나 비행 변화율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행변화율의 변화가 이처럼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청소년비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료에 나타난 대로 청소년비행이 고1때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지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비행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 형	$\chi^2(df)$	NFI	CFI	RMSEA
모형 1 : 무 변화모형	767.86(13)***	.828	.830	.130
모형 2 : 선형 변화모형	446.945(10)***	.900	.902	.113
모형 3 : 2차함수 변화모형	91.975(6)***	.979	.981	.064

*** P<.001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669로 나타나 1차년도에 비행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의 감소가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차년도에 비행을 많이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비행의 감소 속도가 더딘 반면 1차년도 비행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비행의 감소 속도(즉, 비행에서 탈피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초기치와 이차항과의 상관은 .476으로 나타나 비행 초기치가 높을수록 비행 변화율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비행 초기치가 높을수록 비행의 감소속도가 더 느리며 비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일 때 더 빠른 속도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고비행집단이 비행에서 벗어나기

가 더 어려우며 고비행집단과 저비행집단의 비행발달 궤적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비행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미지수(parameter)	평균	변량
초기치(Intercept)	1.107(.03)**	1.854(.09)**
변화율(Slope)	-.333(.02)**	.590(.06)**
2차항(Quadratic term)	.073(.01)**	.023(.003)**
초기치 - 변화율의 상관계수	-.669**	
변화율 - 이차항의 상관계수	-.921**	
초기치 - 이차항의 상관계수	.476**	

()안은 표준오차, ** p <.01

3. 비행의 변화에 대한 예측요인 분석(2수준 분석)

<표 3>에서와 같이 비행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의 변량이 모두 유의함에 따라 이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고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개인, 가족, 친구, 학교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수준 모형은 비행 초기치의 변량을 73.4%, 비행 변화율 변량의 92.0%, 비행 가속도(이차항) 변량의 84.3%를 설명하고 있어 이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개인들 간에 나타나는 비행발달궤적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행 초기치는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부모교육수준, 부모감독, 부자가정, 부부갈등, 자녀학대, 비행친구 수, 학교유대, 학업성적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 중 비행 초기치와 관련이 있는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으로 이 두 변수 모두 비행 초기치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력이 높을수록 비행 초기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족요인 중 비행 초기치와 관련이 있는 변수는 부모교육수준, 부자가정, 부부갈등, 자녀학대 등인데 이 중 자녀학대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자녀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체벌이 비행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행친구수는 여러 가지 예측요인 중 비행과 가장

높은 정도의 정적 관계(.664)로 나타나 청소년비행에 있어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교요인과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유대가 높을수록 비행의 초기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예상과는 달리 학업성적의 경우는 비행 초기치와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비행의 예측요인

	R ²	비행 초기치	비행 변화율	이차항
		.734	.920	.843
통제변수				
결측유무		.055**	-.114*	.210**
실업고(인문고 0, 실업고 1)		.050*	.063	.015
개인요인				
성별(여학생 0, 남학생 1)		.012	.044	.109
자아존중감		-.046*	.090+	-.089
자아통제력		-.191**	.004	.058
가족요인				
부(모) 학력		.038+	-.029	.031
빈곤(빈곤=1)		-.022	.072	-.097
모자가정		.004	.058	-.101
부자가정		.048**	-.086+	.123+
부부갈등		.054+	-.061	.060
부모애착		-.002	-.072	.068
부모감독		-.005	-.015	-.039
자녀학대		.132**	-.204**	.220**
친구요인				
비행친구수		.664**	-.802**	.731**
학교요인				
학교유대		-.178**	.202**	-.175*
학업성적		.048*	-.073	.035
$\chi^2 = 309.187(df=41)$, $p < .001$, NFI = .968, CFI = .970, RMSEA = .005				

주) * $p < .05$, ** $p < .01$, + $p < .10$

비행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자아존중감, 부자가정, 자녀학대, 비행친구수, 학교유대 등 5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정, 자녀학대, 비행친구수는 비행 변화율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비행변화율이 음(-)의 값을 고려할 때 부자가정의

청소년들일수록, 자녀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학생일수록, 비행친구 수가 많을수록 비행 감소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 및 학교유대와 비행 변화율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자아존중감과 학교유대가 높을수록 비행의 감소속도가 더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2차항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부자가정, 자녀학대, 비행친구수, 학교유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차항의 계수가 양(+)의 값을 고려할 때 부자가정일수록, 자녀학대가 높을수록, 비행친구수가 많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행변화율의 증가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학교유대의 경우 비행변화율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유대가 높을수록 비행변화율의 증가가 느리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의 일반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비행의 양상에 있어 개인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년 동안 청소년비행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형의 2차곡선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수준이 청소년 중기(15~17세경)에 가장 높다가 성인기에 가까워지는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수록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서양의 연구(Windle, 2000, McVie, 2003)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이 서구의 일반적인 패턴과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를 추측해보면 서양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 학급단위로 진행된³⁾ 1차년도 조사에서 청소년비행이 과대보고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만으로 이와 같은 상이성이 일반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더 많은 후속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에 대한 자료를 집적한 다음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2차년도부터는 청소년이 서로 다른 학급으로 편성되거나, 다른 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청소년 개인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청소년비행이 중2학년 이래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에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음주, 흡연, 성관계 등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연령효과와 대학 입시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80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7년 청소년 건강행태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8.1%로 중학생 흡연율(9.1%)의 두 배였으며, 음주율이나 성관계경험 등도 중학생에 비해 크게 높다(경향닷컴, 2009년 2월 11일자). 이와 같은 현상은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성인의 문화나 행동을 모방하고 시도해보는 자연스러운 성숙과정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비행 증가가 전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성숙효과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62%가 성적 및 입시 중압감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네이버, 2008)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체감율이 더 높다는 보고(네이버, 2009)는 연령이라는 변수 외에 청소년비행에 입시제도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비행의 주요원인을 개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수준의 강압(coercion)에서 찾는 강압이론(coercion theory)에 따르면 강압적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적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Unnever, Colvin, & Cullen, 2004). 강압의 사전적 의미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과정이나 행동(네이버 영어사전)이라는 점을 보면 지나치게 과열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와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해지는 여러 종류의 학업부담 등이 많은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비행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요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 중 비행 초기치와 가장 관련이 있는 변수는 자아통제력으로 자아통제력이 낮은 학생들의 비행 초기치가 높게 나타났으나 자아통제력이 비행 변화율이나 변화율의 변화(이차항)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자아통제력에 비해 영향력의 정도가 미약하지만 비행 초기치와 변화율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비행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가족요인 중 비행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는 자녀학대로서 자녀학대는 비행 초기치와 변화율, 이차항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부모애착이나 감독이 비행발달궤적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은 것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것으로서 자녀학대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

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 내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 차원의 개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기만 하다. '2006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69.6%(3,621건)는 원가족에게 돌아가 보호조치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대부분은 개별상담에 치중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횟수는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횟수의 약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대행위자를 상담 및 치료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뿐 아니라 학대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상담원 확충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을 제도적으로 강제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후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의 개입 또한 필요하다. 전체 아동학대행위자의 46.8%가 무직, 단순노무직, 비정규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는 보고는 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스트레스가 자녀양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방법 교육, 자녀 양육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학대의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개입 방안이 될 것이다.

부자가정이라는 가족구조 역시 비행 초기치와 변화율, 이차항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자가정 청소년들이 비행에 있어 고위험집단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가족유형 중 부자가정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아동학대가 비행의 주요예측요인임을 고려할 때 부자가정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갈등 또한 비행 초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내적 위험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학력과 비행 초기치는 유의수준 .10이하에서 약한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달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강남, 분당, 목동, 중계 등 교육특구지역 청소년들의 두 명 중 한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13%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는 조사결과(경향닷컴, 2008)는 부모 학력수준이 높은 상위계층 청소년들이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 학업성적이 비행 초기치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으나 이들 학생들의 비행의 원인이나, 비행의 종류, 작동기제 등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행친구의 수는 비행 초기치와 변화율, 이차항과 모두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정도도 가장 크게 나타남에 따라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학교유대는 비행의 초기값, 변화율, 이차항 모두에 영향을 미쳐 학교유대가 학업성적보다 비행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즉, 청소년비행에 있어 더 중요한 학교요인은 학업성적보다 학교 선생님과 관계, 학교친구와의 관계,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 등과 같은 학교유대요인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 학교에 흥미를 잃지 않고 잘 적응하도록 돕고, 비행 발생과 관련이 높은 학교중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이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방식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학교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공립학교 내 대안학급 운영, 도심형·비기숙형·공립 대안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멘토링, 다양한 종류의 치유프로그램이 공립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전민일보 2005년 2월 28자).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는 청소년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의 방법으로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른 비행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청소년비행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성 있는 종단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비행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 발달궤적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이 개인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존재함을 밝히고, 이런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

족·친구·학교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다수의 비행관련 연구들은 횡단연구들이어서 인과관계의 전제조건인 시간적 순서를 확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기보다는 특정시점에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때 측정된 개인·가족·친구·학교요인이 비행의 초기수준 및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독립변수들이 비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청소년집단의 비행 발달궤적을 분석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하지만 청소년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발달궤적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은 청소년 하위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Chung 외, 2002; Moffitt, 1993; Laub 외, 1998; Hoeve 외, 2008; Wiesner & Windle, 2004)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집단 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발달궤적을 추정하고 어떤 요인들이 각각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행을 경험유무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비행의 빈도나 심각성, 지속기간 등 비행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14가지 비행경험을 합하여 비행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비행의 종류에 따른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참 고 문 헌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2호, pp. 1-17.
- 기광도(2001). 사회계층과 범죄행위 간의 관계: 자녀양육 및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기광도, 이희길(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정연구, 제16호, pp. 7-27.
-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유가호(2002). 아버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이존중감, 문제행동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제5권 제1호, pp. 33-43.
- 김정옥, 박경규(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제1호, pp. 93-115.
- 김희화,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이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5호, pp. 15-24.
- 김희화(2001).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1호, pp. 143-162.
- 노성호(2005). 청소년의 비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자료집, pp. 583-605.
- 문화관광부(2004), 2004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2004).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및 피해경험,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
- 민수홍(2005). 낮은 자이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2호, pp. 1-25.
-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6). 2006 한국의 주요아동지표. 보건복지부.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제19권 제2호, pp. 39-49.

- 서지영(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Resilience)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2001). 결혼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 이혼, 별거가족과 사망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17권, pp. 99-125.
- 유성경(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pp. 201-217
- 유순화(200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에 의한 청소년 비행 예측.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 289-315
- 윤혜미, 박병금(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8권, pp. 133-164.
- 이성식(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 159-181.
- 주남희(1994). 국민학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심성계발훈련과 V.I.P.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희(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제32권, pp. 5-34.
- 정소희(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0권, pp. 185-213.
- 정익중(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31호, pp. 133-159.
- 장수한, 이성기(2008). 청소년의 비행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2권, pp. 219-241.
-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4권 제4호, pp. 29-40.
- 한겨레신문 2005. 5. 11일자 기사 : 아동학대 절반가량이 한부모가정서.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 200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전민일보 2005년 2월 28자 기사 : 학교 부적응 중도포기 학생 위한 대책마련 시급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9, pp. 26-30.
- Bryant, A. L., Schulenberg, J. E., O'Malley, P. M., Bachman, J. G., & Johnston, L. D. (2003). How academic achievement,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 to the course of substance use during adolescence: A six-year, multi-wav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13, pp. 361-397.
- Catalano, R. F., Haggerty, K. P., Oesterle, S., Fleming, C. B., & Hawkins, J. D. (2004). The importance of bonding to school for healthy development: Findings from the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74 No. 7, pp. 252-261.
- Cernkovich, S. A., & Giordano, P. C. (1992). School bonding, rac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0, pp. 261-291.
- Chapple, C. 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Vol. 22 No. 1, pp. 89-106.
- Chung, I.-J., Hill, K. G., Hawkins, J. D., Gilchrist, L. D., and Nagin, D. S. (2002). Childhood predictors of offense traject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9, pp. 60-90.
- Demuth, S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41 No. 1, pp. 58-82.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Vol. 16 No. 4, pp. 328-335.
- Ferrer, E., Hamagami, F., & McArdle, J. J. (2004). Modeling latent growth curves with incomplete data using different typ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softw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11, pp. 452-483.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 Heimer, K. (1997). Socioeconomic status, subcultural definitions, and violent

- delinquency. *Social Forces*, Vol. 75 No. 3, pp. 799-833.
- Hoffmann, J. P. & Johnson, R. A.(1998), A national portrait of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0 No. 3, pp. 633-645.
- Hoeve, M., Blokland, A., Dubas, J. S., Loeber, R., Gerris, J. R. M., & Laan, P. H.(2008). Trajectories of delinquency and parenting sty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6, pp. 223-235.
- Hu, L.,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6 No. 1, pp. 1-55.
- James D. Unnever, Mark Colvin, Francis T. Cullen (2004). Crime and Coercion: A test of core theoretical proposition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41 No. 3, pp. 244-268.
- Jang, S. J., & Thornberry, T. P.(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enhancement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 pp. 586-598.
- Landsheer, J. A., & Dijkum, C. J. van (2005). Male and female delinquency trajectories from pre through middle adolescence and their continuation in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Vol. 40, pp. 729-748.
- Laub, J. H., Nagin, D. S. & Sampson, R. J. (1998). Trajectories of change in criminal offending: Good marriages and the desistance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 pp. 225-238.
- Loeber, R., Farrington, D. P., Stouthamer-Loeber, M., & Van Kammen, W. B. (1998). *Antisoci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problems: Explanatory fact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ee, S. M., & Smith-Adcock, S. (2005). A model of girls' delinquency: School bonding and reputation.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Vol. 9 No. 1, pp. 78-87.
- Maguin, E., & Loeber, R. (1996). Academic performance and delinquency. In M. Tonry (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20, pp. 145-264.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CJRS 161962.
- Mason, W. A.(2001). Self-esteem and delinquency revisited (again): A test of Kaplan's self-derogation theory of delinquency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0, pp. 83-102.
- McLeod, J. D., Kruttschnitt, C., & Dornfeld, M.(1994), Does parenting explain the effects of structural conditions on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A comparison of blacks and whites. *Social Forces*, Vol. 73 No. 2, pp. 575-604.
- McVie, S.(2003). PATTERNS OF DEVIANCE UNDERLYING THE AGE-CRIME CURVE:THE LONG TERM EVIDENCE
<http://www.britisoccrim.org/volume7/007.pdf>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Vol. 100, pp. 674-701.
- Pratt, T. C. & Cullen, F. T.(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Vol. 38 No.3, pp. 931-964.
- Pratt, T. C., Turner, M. G., & Piquero, A. R. (2004). Parental socialization and community context: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sources of low self-control.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41, pp. 219-24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pp.1004-1018.
- Rutter M (1995). Casual concepts and their testing. In Rutter M. & Smith, D.(eds), *Psychosocial disorders in young people*. pp. 7-34.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Sons.
- Salem, D. A., Zimmerman, M. A., & Nataro, P. C.(1998), Effects of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father involvement on psychosocial outcome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Vol. 47 No. 4, pp. 331-341.

- Sampson R. J., Laub J. H.(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Vol. 65 No. 2, pp. 523-540.
- Shavit, Y. & Rattner, A.(1988). Age, crime and the early life cours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3 No. 69, pp. 1457-1470.
- Shears, J., Edwards, R. W., & Stanley, L. R(2006). School bonding and substance use in rural communities. *Social Work Research*, Vol. 30 No. 1, pp. 6-18.
- Smith, C. A., Stern, S. B.(1997),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The Social Service Review*, Vol. 71, pp. 382-420.
- Steffensmeier, D., & Streifel, C.(1991). Age, gender, and crime across three historical periods: 1935, 1960, and 1985. *Social Forces*, Vol. 6, pp. 869-894.
- Steffensmeier, D. J., Allan, E. A., Harer, M. D., & Streifel, C.(1989). Age and the distribu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803-831.
- Thornberry, T. P.(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5, pp. 863-891.
- Thomson, E., Hanson, T. L., McLanahan, S. S.(1994), Family structure and child well-being: Economic resources vs. parental behaviors, *Social Forces*, Vol. 73 No. 1, pp. 221-242.
- Vandewater, E. A & Lansford, J. E.(1998),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well-being. *Family Relations*, Vol. 47 No. 4, pp. 323-330.
- Wasserman, G.A., Keenan, K., Tremblay, R.E., Coie, J.D., Herrenkohl, T.I., Loeber, R., and Petechuk, D. (April 2003).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child delinquency*. [Bulletin: Child delinquency series.] Washington, DC: US Dep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http://ojdp.ncjrs.org/publications/PubSearch.asp>]
- Wells, L. E., & Rankin, J. H.(1983). Self concept as a mediating factor in delinquenc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46, pp. 11-22.

- Wiesner, M., & Windle, M.(2004). Assessing covariates of adolescent delinquency trajectories: A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3, pp. 431-442.
- Zieman, G. L, & Benson, G. P.(1983). Delinquency: The role of self-esteem and social valu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2 No.6, pp. 489-500.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elinquency Trajectories

Jeong, So-Hee*

Latent growth curve (LGM) modeling of a 5-wave Korea Youth Panel Survey dataset was conducted to examine a segment of the age-related, quadratic curve for adolescent delinquent activity. The sample of 3,449 adolescents supported a quadratic (U-shaped) LGM model. A time-invariant predictor model was specified to account for the variation in intraindividual change in delinquency. The variables of self-esteem, self-control, parental monitoring, single father family, child abuse, the number of delinquent friends, school bonding and academic achievement had a significant predictive influence upon the intercept. Self-esteem, single father family, child abuse, the number of delinquent friends and school bonding predicted the linear growth parameter; and single father family, child abuse, the number of delinquent friends and school bonding predicted the quadratic component that was associated with an acceleration in delinquen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ultilateral interventions are needed to prevent or reduce adolescent delinquency.

Key Words : adolescent delinquency, growth trajectory of adolescent delinquency,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투고일 : 12월 15일, 심사일 : 3월 19일, 심사완료일 : 3월 19일

* Daegu University